

대한석유협회, 수해복구 성금 15억원 기부



정유4사가 회원사로 있는 대한석유협회는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한 성금 15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발표했다.

박종웅 대한석유협회장은 8월25일 서울 정동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가 기금을 전달하고 “고유가 속에서 막대한 폭우 피해를 본 수해지역 주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기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유기업들은 2008년 12월 특별 공동기금을 조성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보일러 교체, 난방유 긴급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8/25>